

서울 남산(南山) 서대문밖[西大門外] ？는대왓<sup>1)</sup> 서대왓서 솟아난 임정국 뜨님아기, 훗일곱설[單七歲]이 당도(當到) ？니 아방[父] 눈에 굴리 나고<sup>2)</sup> 어멍[母] 눈에 시찌 나<sup>3)</sup> 쫓아내니 요왕천조국(龍王天子國) 웨삼춘(外三寸)신디 수청부인(守廳夫人)으로 들어간다.

일곱 삼춘[七三寸] 일곱 부술[七符術] 청글리[青粉]에<sup>4)</sup> 청중치<sup>5)</sup> 벽글리[白粉]에 벽중치[白囊] 적글리[赤粉]에 적중치 흑글리[黑粉]에 흑중치 황글리[黃粉]에 황중치 노글리에<sup>6)</sup> 노중치 주왕당서(朱黃唐絲) 벌무작<sup>7)</sup> 내여줘 가지고 챙명(清明) 삼월(三月) 초오드렛날(初八日) 요왕문(龍王門) 을려서<sup>8)</sup> 내보내니 부모(父母)를 상멘(相面)하여 사줘(謝罪) ？난.

“네간 가정 나고 가라.”<sup>9)</sup>

십오세(十五歲)가 뒤여 벽주가 눈물로 세주 ？명 하직(下直) ？니, 입단<sup>10)</sup> 입성을<sup>11)</sup> 싸고 느진덕정하님을<sup>12)</sup> 앞을 세와가지고 천기(天機)를 집떠보니<sup>13)</sup> 웨조부님(外祖父一)이 제주 한라산(漢拏山) 산다 허여 웨조부님 쫓아온다. 남방국(南方國)을 상(向)하여 나온다.

떡전거리[餅塵巨里] 밥전거리[飯塵巨里] 모시전거리 푸나무전거리 씩 넘어사니 충청도(忠清道) 포통환<sup>14)</sup> 와서 ？를 처녁[一夜] 숙소(宿所) ？고 전라도(全羅道)로 누려오는 판에 장정(長城) 골제를<sup>15)</sup> 턱 넘어오더니 정인 광대(才人廣大)를 두리고 일천(一千) 선비가 놀음놀이 허염더라.<sup>16)</sup> 느진덕정하님 보고,

“소리 존 옥장귀(玉杖鼓)나 거문귀나 계금(奚琴) 옥통수(玉洞簫)나 빌어 오라.”

느진덕정하님이 일천선비안티 가서,

“벽주님이 거문귀를 빌려 줍센 흡데다.”

일천선비 말씀 ？워,

“예인(女人)은 꿈에만 시꾸와도<sup>17)</sup> 새물(邪物)이라 못쓰는다.”

후욕(詬辱) ？니, 벽주님안티 오란,<sup>18)</sup>

“후욕 ？십데다.”

1) ？는대왓 : 세죽전(細竹田)의 뜻. 지명.

2) 굴리 나고 : 눈에 거슬리었다는 뜻. 원뜻은 가루(粉)나고.

3) 시찌 나 : 굴리나고와 같은 뜻.

4) 청글리[青粉] : 여기의 글리(粉)는 주력(呪力)이 있는 가루인 듯.

5) 청중치 : 청(青) 주머니. 주술(呪術) 주머니인 듯.

6) 노글리 : 녹(綠) 글리의 잘못인 듯.

7) 벌무작 : 벌매듭. 주머니끈의 매듭의 한가지.

8) 을려서 : 열어서.

9) 네간 가정 나고 가라 : 네가 가고자 한 데로 나가거라의 뜻.

10) 입단 : 입던.

11) 입성 : 의복.

12) 느진덕정하님 : 하녀를 일컫는 말.

13) 집떠보니 : 짚어 떠보니.

14) 포통환 : 미상.

15) 골제 : 갈재. 노령(蘆領).

16) 허염더라 : 하고 있더라.

17) 시꾸와도 : 나타나도. 보여도.

18) 오란 : 와서.

백주님이 생각하니 ‘괘씸하다.’ 청골리[青粉] 청중치[青囊] 내여 놓고 푸우하게 부니.

“아야 눈이여.”

“아야 귀여.”

가슴이 아파간다. 설새(泄瀉)가 나간다. 문딱<sup>19)</sup> 죽어간다. 유식(有識) 선비 혼나이.

“필아곡절(必有曲折) 이상하다.”

백주님안티 가 사죄(謝罪)하네.

“청구(請求)하는 것 다 드릴 테오니 과연(果然) 목숨 살려줍서.”

부술(符術)을 걷으니 일천선비 살아간다.

거문귀를 빌어놓고 부모(父母) 이별할 때에 눈물로 세수(洗手)한 네력(來歷)을 읊어 풀어간다.

일천선비 작별(作別)하고 베진고달또<sup>20)</sup> 오라<sup>21)</sup> 조천(朝天里)의 짐씨선조(金氏船主) 배[船]를 잡아타고 조천(朝天里) 새역코지예<sup>22)</sup> 배를 부쳐, 조천관(朝天館) 앞선도<sup>23)</sup> 정중부인<sup>24)</sup>안티 가 맹암(名卿)을 드리네

“저는 서울 서대문밖[西大門外] 그는대왓 서대왓서 솟아난 임정승의 땔님 백줍네다.”

“어찌하여 왔느냐?”

“한라산(漢拏山) 벽록담(白鹿潭)에 천조(天子)님이 웨조부님(外祖父一) 됨네다. 쫓아오는 질입네다. 질 인도[路引導]를 허여줍서.”

장귀동산<sup>25)</sup> 일₩도<sup>26)</sup>를 불러서,

“이 애기씨 질 인도(引導)를 허여 주라.”

묵은벵디왓 새벵디왓<sup>27)</sup> 진무르동산<sup>28)</sup> 알눈미[下臥山]<sup>29)</sup> 금산률<sup>30)</sup> 눈미[臥山] 당오름(堂岳)<sup>31)</sup> 옆으로 안드리[內橋來里]를 건나서 셋드리[中橋來里] 낫?이[川邊]를 들어가다 보니 웬흔<sup>32)</sup> 애기씨가 지나간다. 백주님이 말씀하네.

“너는 어떤 애기씨냐?”

“저는 허선장의 땔님아기 됨네다.”

“그레면 너의 집의 웨스랑이<sup>33)</sup> 있느냐? 오늘 처녁[今夜] 유숙(留宿)하여 가겠다.”

“저의 집의 웨스랑이 있습네다. 어서 오옵소서.”

좌정(坐定)하여 앗지고<sup>34)</sup> 애기씨님은,

19) 문딱 : 모두.

20) 베진고달또 : 소재 미상 지명.

21) 오라 : 와(來).

22) 새역코지 : 조천면 조천리(朝天面朝天里) 해변의 지명.

23) 앞선도 : 조천리의 지명.

24) 정중부인 : 조천리 당신(堂神).

25) 장귀동산 : 조천리(朝天里)의 지명.

26) 일₩도 : 장귀동산에 있는 칠일당신(七日堂神).

27) 새벵디왓 : 조천면의 지명.

28) 진무르동산 : 조천면의 지명.

29) 알눈미(下臥山) : 조천면 와산리(臥山里) 하동(下洞).

30) 금산률 : 조천면의 지명.

31) 당오름(堂岳) : 조천면 와산리당(臥山里堂)이 있는 오름(岳).

32) 웬흔 : 어떠한, 이상한.

33) 웨스랑이 : 밖(外) 사랑방.

34) 앗지고 : 앗하고.

“무신 음식(飲食)을 잡습네까?”

“나는 손으로 벤<sup>35)</sup> 음식(飲食)은 손내<sup>36)</sup> 나서 못내 먹고, 칼로 벤 음식은 뗏내 나서 못내 먹고, 씰[絲]로 밀어 정정과(正果)<sup>37)</sup>나 물콥[馬蹄] ?뜬 벡(白)돌레<sup>38)</sup>나 얼음[氷] ?뜬 벡(白)시리<sup>39)</sup>나 노기메<sup>40)</sup>예 청감쥐(清甘酒) 청근체(菁根菜) 게알(鷄卵) 안주 먹나.”<sup>41)</sup>

집으로 들어가니 벡(白)돌레예 벡(白)시리예 청감쥐(清甘酒)예 게알(鷄卵)안주 데접(待接)흡데다. 그날 처낙<sup>42)</sup> 유숙(留宿)하고 나올 적엔 중치<sup>43)</sup> 흐나를 클려 주며,

“급(急)한 지경(地境) 당하거든 이 중치[囊]를 내여놓고 날 생각을 하오시면 혼번 두번 식번[三番]??지 살려주마. 허씨댁(許氏宅)을 상단골(上丹骨)을 무엄시니<sup>44)</sup> 엇인 맹(命)을 잊어 주마. 엇인 복(福)을 잊어 주마.”

허여 두고 벽주님이 올라갈 때 알소남당<sup>45)</sup>으로 웃소남당<sup>46)</sup>으로 게미목<sup>47)</sup> 벽록담(白鹿潭)을 올라사서 보니 웨조부님(外祖父一) 행방(行方)을 몰라진다.

오영팔괄(五行八卦) 벌려 보니 천조(天子)님이 동북방(東北方)을 상(向)허여 간 듯한 거늘. 동북방을 상(向)허여 누려온다. 웃소남당 알소남당 두리앞벵디<sup>48)</sup> 쌍계못벵디<sup>49)</sup> 시릿벵디<sup>50)</sup> 높은오름<sup>51)</sup> 쉐고개특<sup>52)</sup> 아끈두랑쉬<sup>53)</sup> 한두랑쉬 비즈낭곳[榧子林]<sup>54)</sup> 누려오니, 웬흔 포수(砲手)가 웃통[上衣]은 지달피<sup>55)</sup> 알통[下衣]은 산달피<sup>56)</sup> 지리바른<sup>57)</sup> 마상총(馬上銃) 귀약통<sup>58)</sup> 남눌개<sup>59)</sup> 네눈이 반둥갱이<sup>60)</sup> 두리고, 벽주님이.

“저레 가는 포수님아 말씀 장깐 물으쿠다. 천조(天子)님이 어느만쯤 계시우꽈?”

“예, 저가 천조님 거행집사(舉行執事) 됨네다. 저를 떠나오민 인도(引導)허여 드리리다.”

웃멍등이를<sup>61)</sup> 나려오다.

“여기 장깐 계십소서.”

35) 벤 : 끊은.

36) 손내 : 손 냄새.

37) 정정과(正果) : '정-'은 조운음(調韻音).

38) 벡(白)돌레 : 흰 돌래떡.

39) 벡(白)시리 : 흰 시루떡.

40) 노기메 : 놋그릇에 물과 쌀을 넣어 김으로 쪐 맷밥. 노기 당산메.

41) 먹나 : 먹는다.

42) 처낙 : 저녁.

43) 중치 : 주머니.

44) 무엄시니 : 맷고 있으니.

45) 알소남당 : 구좌면(舊左面) 하송당(下松堂).

46) 웃소남당 : 구좌면 상송당(上松堂).

47) 게미목 : 한라산 정상(頂上) 가까이 있는 지명.

48) 두리앞벵디 : 조천면 교래리(橋來里) 앞 평야.

49) 쌍계못벵디 : 조천면 선흘리(善屹里) 지명.

50) 시릿벵디 : 구좌면 덕천리(德泉里) 지명.

51) 높은오름 : 송해(松堂里)의 악명(岳名).

52) 쉐고개특 : 구좌면 덕천리(德泉里) 지명.

53) 아끈두랑쉬 : 구좌면 세화리(細花里)의 악명(岳名).

54) 비즈낭곳(榧子林) : 평대리(坪垈里) 자생비자림(自生榧子林).

55) 지달피 : 지달피(地獺皮).

56) 산달피 : 산달피(山獺皮).

57) 지리바른 : 길이가 바른. 총(銃)열이 바른의 뜻.

58) 귀약통 : 화승총(火繩銃)의 화약통.

59) 남눌개 : 화약, 탄알 등을 넣는 그릇.

60) 네눈이반둥갱이 : 개를 일컫는 말.

61) 웃멍등이 : 평대리(坪垈里)의 지명.

들어가더니, 지달피 웃통 산달피 알통 벗어 두고 남방수주(藍紡絲紬) 바지에 북방수주(白紡絲紬) 저구리에 상싱보선<sup>62)</sup> 공데여창신<sup>63)</sup> 오일망긴<sup>64)</sup> 접선통<sup>65)</sup> 궁젓짓갓<sup>66)</sup>을 써고<sup>67)</sup> 냄비단<sup>68)</sup> 섭씨(夾袖)에 남수와지(藍水禾紬) 저전데(戰帶)<sup>69)</sup> 채찍을 손에 들어, 서울 선베 모양으로 출려 나와서,

“백주님아 저를 떨뢰 옵서.”

뜰라 들어가멍 보니 사농꽝<sup>70)</sup> 쉬꽝<sup>71)</sup>이 하영<sup>72)</sup> 있고 노랑내<sup>73)</sup> 콤내<sup>74)</sup> 탕천(撐天)호니, 백주님 이 물도독놈[馬盜賊—] 쉬도독놈[牛盜賊—] 있는 디를 속아서 와지는가 생각하고 ‘투 더럽다!’<sup>75)</sup> 나아온다. 나아오젠 호니<sup>76)</sup> 명동소천국이<sup>77)</sup> 백주 홀목이를<sup>78)</sup> 비여잡나.<sup>79)</sup> 부산백통<sup>80)</sup> 화로장 도<sup>81)</sup> 빼여내여,

“얼굴은 보니 양반(兩班)인디 행실(行實)은 불쌍놈만<sup>82)</sup> 못호다. 더러운놈 잡아난 홀목을 훤다 뭣호리.”

풀을<sup>83)</sup> 짹싹 까까 데껴두고<sup>84)</sup> 물멩지 전대(戰帶)로 뜰뜰<sup>85)</sup> 싸서 상서화릴(上細花里) 올라가 손 드랑무를<sup>86)</sup> 떠렁쉐무를<sup>87)</sup> 쫓아가서, 천주님전 맹암(名卿)을 드리니, 천주님이 말씀호워,

“너는 어디 사는 애기씨냐?”

“서울 서대문밖(西大門外) ?는대왓<sup>88)</sup> 서대왓서 솟아난 임정승의 뜨님 백주아기 웻네다. 천주 님이 웨하르바님[外祖父] 됨다 헤야 베릿물[硯水]이나 떠낳<sup>89)</sup> 얻어먹젠 왔습네다?”

“너는 무신 음식을 먹느냐?”

“씰로 밀어 정정쾌(正果)나<sup>90)</sup> 물콥[馬蹄] ?뜬 벡(白)돌레나 얼음[氷] ?뜬 벡(白)시리나 노기메 예 청감쥐(清甘酒) 청근체(菁根菜) 게알(鷄卵)안주 먹읍네다.”

“나광<sup>91)</sup> 동좌(同坐)할 만호다. 너는 무신 제주를 배왔느냐?”

62) 상싱보선 : 삼승포(三升布) 버선.

63) 공데여창신 : 꽃당혜(唐鞋) 창신의 잘못. ‘창신’이란 당혜(唐鞋).

64) 오일망긴 : 외울망건.

65) 접선통 : 겹상투.

66) 궁젓짓갓 : 공작(孔雀)깃 갓.

67) 써고 : 쓰고.

68) 냄비단 : 남(藍)비단.

69) 저전데(戰帶) : ‘저-’는 조운음(調韻音).

70) 사농꽝 : 사냥 빼다귀.

71) 쉬꽝 : 소 빼다귀.

72) 하영 : 많이.

73) 노랑내 : 노린내.

74) 콤내 : 쇠고기의 기름냄새.

75) 투 더럽다 : ‘투-’는 침을 뱉는 소리에서 딴 것.

76) 나아오젠 호니 : 나오자고 하니.

77) 명동소천국 : 평대리(坪垈里) 명통이의 당신.

78) 홀목이 : 팔목.

79) 비여잡나 : 덥석 잡는다.

80) 부산백통 : 부산 백동(釜山白銅).

81) 화로장도 : 화룡장도(畫龍粧刀).

82) 불쌍놈 : 쌍놈의 강조.

83) 풀을 : 팔을.

84) 까까 데껴두고 : 깎아 던져두고.

85) 뜰뜰 : 단단하게 둘려 감는 모양.

86) 손드랑무를 : 세화리(細花里)의 지명.

87) 떠렁쉐무를 : 조운구(調韻句).

88) ?는대왓 : 가는 대밭(細竹田)이란 뜻.

89) 떠낳 : 떠 놓아서.

90) 정정쾌(正果) : ‘정-’은 조운음(調韻音).

“요왕국(龍王國) 들어가 일곱삼촌[七三寸]안티 일곱증치[七囊] 일곱부술[七符術] 베왔습니다.”

“들어오라.”

방안에 턱 앗지니<sup>92)</sup> 날낳내<sup>93)</sup> 날핏내가 탕천(撐天)한니.

“어찌하여 너 우으론 날낳내 날핏내가 나느냐?”

“질 인도(引導)허여 도렌<sup>94)</sup> 멍동소천국안티 말한니 홀목이를 비여잡근테<sup>95)</sup> 부산백통(釜山白銅) 화로장도(畫龍粧刀) 빼여내여 까까두고 왔습네다.”

천주님이 쟁을 내여.

“그런 괘씸한 놈이 있느냐. 내 증손이 오는디. 모른다 강적(強賊)이냐, 바당(海)의 수적(水賊)이냐. 그자 둘 수 웃다.”

하고, 마은으듭[四十八] 상단골(上丹骨) 서른으듭 중단골 시물으듭[二十八] 하단골 사을[三日] 상뒤 메와간다. 일궤[七日] 상뒤<sup>96)</sup> 메와간다.

천주님이 공포(公布)한궤.

“내 증손(子孫)이 오시는디 겁탈(劫奪)한저 허여시니<sup>97)</sup> 꽤씸한다. 땅 갈르고 물 갈르라. 바른물 모리<sup>98)</sup>로 구획(區劃)해야 물도 혼물<sup>99)</sup> 먹지 말라. 질(路)도 혼질 걷지 말라. 사돈(查頓) 혼문<sup>100)</sup> 떠나간다. 서화리(細花里) 땅 뎅기는 자손이랑 간마리<sup>101)</sup> 땅에 뎅기지 말곡. 간마리 땅 뎅기는 증손이랑 서화리(細花里) 땅 오지 말라.”

옛적의 법을 그대로 실행(實行)하였습네다. 그리한니 백주님과 증손간(子孫間)의 마은으듭 상단골(上丹骨) 서른으듭 중단골 시물으듭 하단골 예레듭[十八] 아이단골(兒丹骨)에 백주님이 일곱증치[七囊] 풍문조화(風雲造化)를 불러줘서 천주님이 상(床)을 받게 흡네다.

영등이월 예리틀날[十二日] 영든손맞이대제일 받고, 정칠월들[七月] 예리틀날 마불림대제일 받사옵고 시월(十月) 예리틀날 시만국대제일(新萬穀大祭日) 받사옵고 일년(一年) 삼대제일(三大祭日)을 받읍네다.

---

서울 남산 서대문 밖 가는대밭에서 솟아난 임정국 따님아기가 일곱살이 되니, 아버지 눈에 거슬리고 어머니 눈에 거슬려 쫓겨나 용왕천자국 외삼촌에게 수청부인으로 들어갑니다.

일곱삼촌은 일곱 부술을 가르쳐 주고, 청가루에 청주머니 백가루에 백주머니 적가루에 적주머

91) 나광 : 나와. 공동격(共同格).

92) 앗지니 : 앉히니.

93) 날낳내 : 날핏내.

94) 도렌 : 달라고.

95) 비여잡근테 : 덤석 잡길래.

96) 상뒤 : 상도(喪徒). 여기선 대중이 집합함을 뜻함.

97) 허여시니 : 했으니.

98) 바른물모리 : 세화리(細花里)와 평대리(坪垈里)의 경계선 지명.

99) 혼물 : 한 물. 같은 물의 뜻.

100) 혼문 : 일문(一門).

101) 간마리 : 평대리의 동명(笠頭洞).

니 흑가루에 흑주머니 황가루에 황주머니 녹가루에 녹주머니 등 주술 주머니와 주황당사 매듭을 내어 줍니다. 청명 삼월 초여드렛날에야 용왕문을 열어 내보내니 따님아기는 부모를 찾아와 상면하고 사죄했으나.

“네가 가고 싶은 데로 나가거라.”

하고 내쫓읍니다. 15세가 된 백주는 눈물로 세수하면서 하직하고, 입던 의복을 싸고 느진덕정하님을 앞세워 나오며 천기를 짚어 떠보니, 외조부님이 제주 한라산에 산다 하여 외조부님을 찾아 남방국을 향하여 길을 나섭니다.

떡전거리 밥전거리 모시전거리 푸나무전거리를 썩 넘어서 충청도 포룡환에 와서 하루 저녁을 머물고 전라도로 내려오는데, 장성 갈재를 턱 넘었더니 재인광대를 데리고 일천 선비가 놀음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백주는 느진덕정하님을 보고,

“소리 좋은 옥장고나 거문고나 해금 옥통소를 빌어 오라.”

느진덕정하님이 일천선비에게 가서,

“백주님이 거문고를 빌려 주십시오.”

일천선비가 말씀하되,

“여인은 꿈에만 보여도 사물인데 무슨말이냐? 못쓴다.”

호통을 치니, 느진덕정하님은 백주님에게 와서,

“호통만 치십니다.”

백주님이 ‘괘씸하다’ 생각하고 청가루 청주머니를 내 놓아 ‘푸우’하게 부니,

“아야 눈이여.”

“아야 귀여.”

가슴이 아파간다. 설사가 나간다 모조리 죽게 되어간다. 유식한 선비 하나가,

“필유곡절 이상하다.”

백주님에게 가 사죄하되,

“청구하는 것을 다 드릴 테니 과연 목숨만 살려 주십시오.”

부술을 걷으니 일천선비가 살아난다. 거문고를 빌어놓고 부모 이별할 때에 눈물로 세수한 내력을 옮겨 가며 간장을 풀어간다.

일천선비와 작별하고 배진고달또에 와 조천의 김씨선주의 배를 잡아타고 조천 새역코지에 배를 불입니다. 조천관 앞선도에 좌정한 정중부인에게 가 명함을 드리면서,

“저는 서울 서대문 밖 가는대밭에서 솟아난 임정승의 따님 백주입니다.”

“어찌하여 왔느냐?”

“한라산 백록담에 사시는 천자님이 외조부님 됩니다. 찾아가는 길입니다. 길 인도를 하여 주십시오.”

정중부인은 장귀동산에 좌정한 당신 일렛도를 불러서,

“이 아기씨의 길 인도를 하여 주라.”

일렛도의 길 인도를 받아서 묵은뱅디왓, 새뱅디왓으로, 진마루동산, 알눈미 금산털, 눈미 당오

를 곁으로 하여 안다리를 건너서 샛다리 냇가를 들어가다 보니, 어떤 아기씨가 지나간다. 백주님이 말씀하되,

“너는 어떤 아기씨냐?”

“저는 허선장의 따님아기가 됩니다.”

“그러면 너의 집에 사랑방이 있느냐? 오늘 저녁 머물고 가겠다.”

“저의 집에 사랑방이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백주님을 좌정하여 앉히고 아기씨는,

“무슨 음식을 잡수십니까?”

“나는 손으로 벤 음식은 손 냄새가 나서 못 먹고, 칼로 벤 음식은 쇠 냄새가 나서 못 먹고, 실제로 밀어 끊은 정과나 말 발톱 같은 백돌래나 얼음같은 백시루나 놋그릇의 멧밥이나 청감주 청근채 계란안주를 먹는다.”

허선장 따님아기 집으로 들어가니, 백돌래에 백시루에 청감주에 계란안주를 대접합니다. 그날 저녁 머물고, 나올 적에는 주머니 하나를 끌려 주며,

“급한 지경에 당하거나 이 주머니를 내 놓고 나를 생각하고 있으면 한번 두번 세번까지는 살려주마. 허씨 댁을 상단골로 맷고 가니 없는 명을 이어 주마. 없는 복을 이어 주마.”

그렇게 말해 두고 백주님이 백록담으로 올라갈 때 알송당으로 윗송당으로 개미목으로 하여 백록담에 올라서서 보니, 외조부님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오행팔괘를 벌려 보니 천자님이 동북방을 향하여 간 듯하므로 동북방을 향하여 내려온다. 윗송당, 알송당, 다리앞뱅디, 쌍계못뱅디, 시릿뱅디, 높은오름, 쇠고개턱, 아끈다랑쉬, 한다랑쉬, 비자낭곳을 거쳐 내려오니, 어떤 포수가 윗옷은 지달피, 아래는 산달피, 종열이 바른 마상총, 귀약통, 남날개를 짚어지고 네눈의 반동개를 이끌고 지나가고 있으니 백주님이 불러.

“저리 가는 포수님아, 말씀 잠깐 묻겠습니다. 천자님이 어디쯤 계십니까?”

“예, 제가 천자님 거행집사 됩니다. 저를 따라오면 인도하여 드리겠습니다.”

웃명둥이를 내려오다,

“여기 잠깐 계십시오.”

하고 포수는 집안으로 들어가더니, 지달피 윗옷 산달피 아래 옷을 벗어 두고, 남방사주 바지에 백방사주 저고리를 입고, 삼승버선 꽂당혜 창신을 신고, 외올망건에 겹상투에, 공작 깃 갓을 쓰고, 남비단 협수에 남수화주 전대에 채찍을 손에 넌짓 들고, 마치 서울 양반처럼 차리고 나온다.

“백주님아 저를 따라 오십시오.”

따라 들어가면서 보니, 사냥하고 난 뒤의 짐승 뼈랑 소 뼈가 많이 있고 노린내 콤내가 탱천하니, 백주님이 말도둑놈 소도둑놈이 있는 곳을 속아서 와 지는가 생각하고 ‘퉤, 더럽다’ 하며 돌아나옵니다. 나오는데 멍동소천국이 백주또의 손목을 덥석 잡읍니다. 백주또는 부산백동 화룡장도 를 빼어내어,

“얼굴은 보니 양반인데 행실은 상놈만도 못하구나. 더러운 놈 잡았던 손목을 두었다 뭣하리.”

하고는 팔목을 썩썩 깎아 던져두고 명주 전대로 똘똘 싸서 상세화리 올라가 손드랑마루로 찾

아가서 천자님께 명함을 드리니, 천자님이 말씀하되,

“너는 어디 사는 얘기씨냐?”

“서울 서대문 밖 가는대밭에서 솟아난 임정승의 땅에 백주아기가 됩니다. 천자님이 외할아버지가 된다 하여 벼룩물이나 떠 놓고 얹어먹으려고 왔습니다.”

“너는 무슨 음식을 먹느냐?”

“실로 밀어 끊은 정과나 말 발톱같은 백돌래나 얼음같은 백시루떡이나 놋그릇의 메에, 청감주, 청근채, 계란안주를 먹습니다.”

“나와 같이 좌정할 만하다. 너는 무슨 재주를 배웠느냐?”

“용왕국에 들어가서 일곱삼촌에게 일곱 주술주머니 일곱부술을 배웠습니다.”

“들어오너라.”

방안에 턱 앉히니 날핏내가 심히 나서.

“어찌하여 너 위로는 날핏내가 나느냐?”

“길을 인도해 달라고 멍동소천국에게 말하니 손목을 덥석 잡길래 부산백동 화룡장도를 꺼내어 깎아두고 왔습니다.”

천자님이 화를 내어.

“그런 괘씸한 놈이 있느냐? 내 자손이 오는데, 마른 곳의 강적이냐, 바다의 수적이냐. 그냥 둘 수 없다.”

하고, 마흔여덟 상단골 서른여덟 중단골 스물여덟 하단골을 삼일 동안 모아간다. 칠일 동안 모아간다.

그리고 천자님이 공포하되.

“내 자손이 오는데 겁탈하려 하였으니 괘씸하다. 땅 가르고 물 갈라라. 바른 물머리로 획을 해서 물도 같은 물 먹지 말아라. 길도 같은 길을 걷지 말아라. 사돈도 하지 않는다. 세화리 땅에 다니는 자손은 간마리 땅에 다니지 말고, 간마리 땅에 다니는 자손은 세화리 땅에 오지 말아라.”

그후로 그때 천자님이 말한 법을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리하니 백주님과 자손간의 마흔여덟 상단골 서른여덟 중단골 스물여덟 하단골 열여덟 아이단골에게 백주님이 일곱주머니 풍운조화를 불러 주도록 하여 천자님이 제를 받도록 합니다.

이월 열이튿날에는 영등손맞이 대제를 받고, 칠월 열이튿날에는 마불림대제를 받고, 시월 열이튿날에는 시만국대제를 받는데, 이것이 일년의 삼 대제가 됩니다.